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186

1 국제교류원 칼럼(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스노든 요제프)
최남단에 있는 최첨단

2 지사 관련 새소식
'가고시마 X 베트남 · 테트 페스타'를 개최하였습니다(2월 11일)

3 가고시마 국제교류
대만 핑둥현을 방문하여 MOU(교류 협정)를 체결하였습니다(1월 22일)

4 관광 가고시마 제철 정보
플라워파크 가고시마(이부스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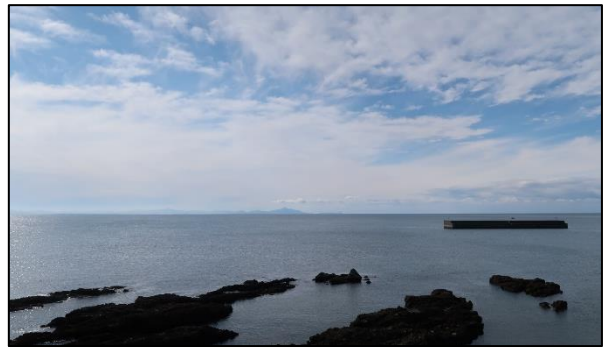
● 최남단에 있는 최첨단 ●

-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스노든 요제프(영국 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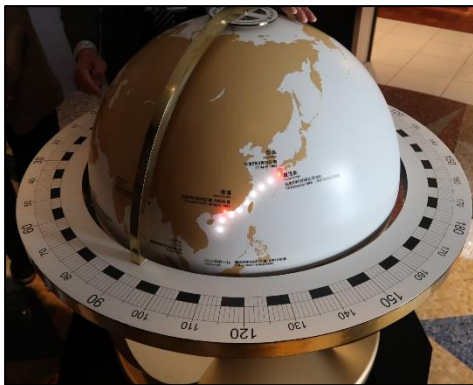
남쪽의 보물 상자, 가고시마. 가고시마가 이렇게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첫 일본 여행지로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고시마현은 수도에서도 멀고, 본토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 것일까요? 물론 도도부현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가고시마는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가고시마현은 몇 세기 동안이나 최첨단을 걷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 내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선구적인 곳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죠. 지금은 1865 년으로, 여러분은 사쓰마번의 10 대 청소년입니다. 하시마의 바위투성이의 해안에서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곧 타게 될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항 사령서에는 사쓰마 섬의 조사를 위함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 본래의 사명은 다르죠. 쇠국 중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밀항하여 수 개월에 걸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외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을 위한 지식을 쌓는 것이죠.



하시마의 바다



사쓰마 유학생들은 지구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 일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사쓰마 유학생들의 실화입니다. 서양의 기술 등을 배우기 위해 가족과 작별을 고하고 영국으로 떠났죠. 가족을 뒤로하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장소와 사람, 기술 등을 만나며 그 용기 있는 젊은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도 자주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여행 중에 만난 많은 것들은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홍콩의 밤하늘을 밝히는 수많은 가스등, '그 빠르기가 질풍과도 같다'는 경탄을 자아낸 이집트 종단 증기 기관차,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런던의 세계 최초의 지하철까지... 또한 영국이 부설한 인도 봄베이(현, 뭄바이)까지 연결되어 있던 해저 전신 케이블 덕분에 런던에서의

숙박 시설 수배는 영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완료되어 있었죠. 이것은 하시마에서 언제 출항할지 몰라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유학생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쓰마 유학생들의 이야기는 영국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쓰마 유학생들의 단체 사진

유학생의 대부분은 귀국하여 일본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데라시마 무네노리는 가나가와현지사로서 도쿄와 요코하마를 잇는 일본 최초의 전신기 공사를 성공으로 이끌며 '전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훗날 외무 대신으로도 취임하였죠. 고다이 도모아쓰는 오사카 경제계의 중진이 되어 오사카상공회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 등을 설립하였습니다. 마치다 히사나리는 대영 박물관에 자극을 받아 도쿄국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으로 취임하는 등 사쓰마의 선구자들은 일본의 미래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지금도 사쓰마 유학생들의 이야기는 이치키쿠시키노시에 있는 사쓰마번 영국 유학생 기념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출발한 바로 그 땅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적인 유물들로 넘쳐나죠. 가고시마가 왜 일본 근대화의 원점이 되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쓰마번 영국 유학생 기념관

그러나 가고시마현 사람들의 개척자 정신은 역사 속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고시마의 선구자들은 위를 향하고 있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960년대 이후,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2곳의 로켓 발사장에서 로켓을 쏘아올린 후 현재도 추적 중에 있습니다. 1곳은 오스미 반도의 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소로, 다른 1곳은 다네가시마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입니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 시설은 전국에서도 이 2곳밖에 없어서 가고시마현은 '우주로 가는 현관'이기도 하죠. 1970년부터 지구 둘레를 공전하고 있던 일본 최초의 인공위성은 발사 지역과

연관되어 '오스미'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 9월 7일, 다네가시마에서 이륙한 로켓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가고시마시에 있는 자택에서 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주 동안은 그 여운에 잠겨 있었고, 지금도 로켓의 박력 넘치는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제가 보았던 로켓이 달 표면에 착륙하였습니다. 가고시마현의 섬에서 쏘아올린 달 탐사기 'SLIM(소형 달 착륙 실증기)'이 달 표면 착륙에 성공하며, 세계에서 5번째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죠.



가고시마의 하늘을 나는 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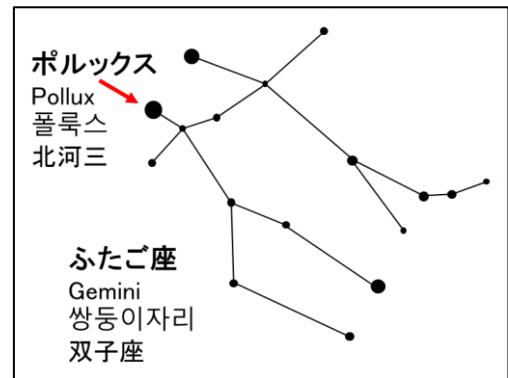


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소의 파라볼라 안테나 (좌: 20m, 우: 34m)

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소의 34m 파라볼라 안테나는 1998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당시 송신된 전파는 약 35년간 우주 공간을 지나 광속으로 돌진하고 있죠.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을 지난 것은 200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쌍둥이자리 가장 밝은 별(폴룩스)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쌍둥이자리를 찾아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가고시마현을 기원으로 하는 전파 신호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도 닿고 있습니다.

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소는 일반인도 입장할 수 있는 곳으로 저도 올해 1월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안테나를 올려다보면 주변은 조용하고 전기 기기의 전파 잡음만이 들립니다. 의외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도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길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현의 개척자 정신은 오스미 반도의 기복 있는 구릉 지대에서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소

지사 관련 새소식

● '가고시마 X 베트남 · 테트 페스타'를 개최하였습니다(2월 11일)●

'가고시마 X 베트남 · 테트 페스타'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현에는 5,000 명이 넘는 베트남인들 외에도 다양한 국적의 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가고시마의 실현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오프닝 세리머니에서는 행복을 빌며 냘비를 두드리는 베트남의 신년 운수 이벤트에 지사도 참가하여 베트남의 설(테트)을 축하하였습니다. 스테이지 이벤트에서는 베트남의 전통 무용과 쇼난고등학교 서예부의 서예 퍼포먼스 등 일본과 베트남 양국의 문화를 선보였고, 많은 베트남분들과 현민 여러분이 참석해 주시어 행사장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또한 (공사) 2025년 일본국제박람회협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으며, 엑스포 공식 캐릭터 '야쿠야쿠'도 등장하여 오사카 · 간사이 엑스포를 PR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베트남인을 비롯한 재류 외국인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사 주최자 인사 말씀



엑스포 토크 쇼



베트남 민족 무용

가고시마 국제교류

●대만 핑둥현을 방문하여 MOU(교류 협정)를 체결하였습니다(1 월 22 일)●

대만 핑둥현을 방문하여 동 현과 MOU(교류 협정)를 체결하였습니다.

저우춘미(周春米) 핑둥현지사는 작년 9월 가고시마현을 방문했을 때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현의 교류가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지사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핑둥현과 청소년, 예술·문화, 관광, 경제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MOU 체결식의 기념품으로 저우(周) 지사에게 가고시마현산의 금굴 등을 증정하였으며, 저우(周) 지사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산품의 판로 개척과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는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한 대만 북부 지역에서 실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대만 남부 지역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좌: 시오타 지사, 우: 저우춘미 지사



MOU 체결



가고시마현산 금굴 증정



기념 촬영

●플라워파크 가고시마(이부스키시)●



사진 제공: 플라워파크 가고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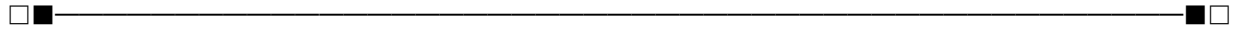
플라워파크 가고시마는 꽃, 바람, 빛의 심포니를 테마로 꽃과 푸른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교류의 장이 되며, 매력적인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가고시마현 사쓰마 반도 최남단인 나가사키바나 근처에 위치해 있어 기후가 온난하며, 천연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살린 세계 각지의 식물을 즐길 수 있는 식물원입니다.

36.5헥타르의 광대한 부지에 남아프리카, 호주 등의 아열대 식물과 온대 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가이몬다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꽃의 광장과 가고시마(긴코)만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길, 탁 트인 느낌의 실내 정원과 유럽풍의 서양식 정원 등이 있으며, 온실에서는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는 립스틱야자, 비취 덩굴, 마그니피카메디널라 등의 열대 식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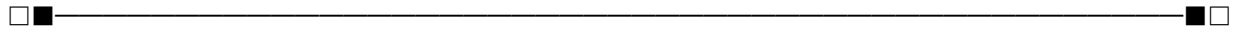
신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진학이나 취직 혹은 전근 등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들도 싹을 틔우는 따뜻한 이 계절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어지는 봄입니다.

금년도도 계속해서 가고시마현의 다언어 메일 매거진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호도 기대해 주세요!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